

 국토교통부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9.11.18.(월) 총 4매(본문 3)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항공교통과	담 당 자	•과장 유경수, 주무관 이준호 •☎ (044) 201-4301	
	부산지방항공청 항공관제국	담 당 자	•국장 이원행, 항공관제팀장 임의석 •☎ (051) 974-2201, 2202	
보 도 일 시		2019년 11월 19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1.18.(월) 11:00 이후 보도 가능		

여수공항 주변지역을 재난안전지대로 바꾸었습니다.

- 여수산업단지 상공 횡단 비행 금지로 초대형 재난사고 예방 -

□ 부산지방항공청(청장 장만희)은 그간 여수산업단지 상공을 통과하던 훈련용 항공기의 비행경로를 변경하여, 우회 비행하게 함으로써 여수산업단지 내 훈련용 항공기 추락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초대형 재난사고 가능성을 제거하였다고 밝혔다.

○ 최근 10년간 무안·정석·태안 비행장에서 여수공항으로 입·출항하는 시계비행 훈련용 항공기 운항 횟수가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여수산업단지 상공을 통과(연평균 12,000회)하는 기존의 비행경로로는 항공기 안전운항에 대한 우려가 있어 왔다.

* 최근 10년간 운항수요 2.4배 증가 ('09년(10,407회) → '18년(25,307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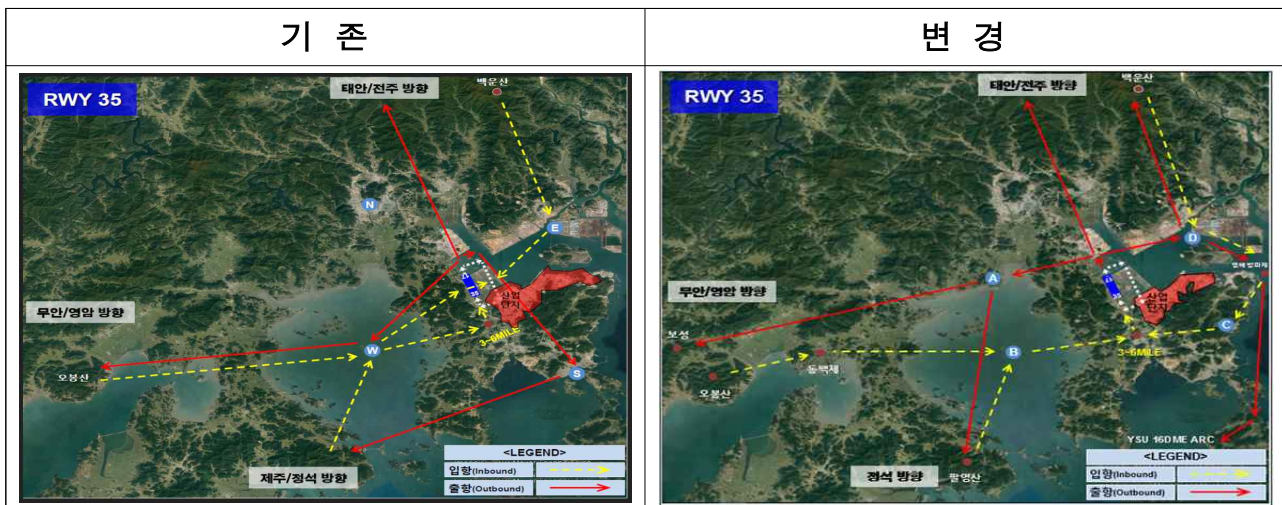
□ 여수산업단지는 여수공항 동쪽 약 1.8km에 위치한 국내 최대 석유화학 단지로, 관리면적만 31,711천㎡에 이르는데다가 GS칼텍스 등 288개 업체에 2만여 명이 근무하는 대규모 석유화학 산업시설이다.

○ 만일, 기체결합·조종미숙 등으로 인해 훈련용 항공기가 산업단지로 추락한다면 초대형 재난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 실제로 지난 6월 13일에는 모 대학교 소속 훈련용 항공기가 여수 공항에서 훈련비행 중 여수산업단지 서쪽 약 4.5km에 위치한 야산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 이와 관련, 부산지방항공청은 잠재된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하여 금년 8월부터 훈련용 항공기의 입·출항 비행절차를 면밀하게 검토한 후, 여수산업단지 상공을 통과하거나 근접 비행하는 경로(절차)를 전면 개편('19.10.31) 하였다.

< (그림1) 비행경로 전면 개편(우회비행 경로 설정) >



○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 (기존) 무안·태안·울진비행장과 여수공항 간을 왕복 비행하는 훈련용 항공기가 활주로 남쪽 방향의 여수산업단지 상공을 통과(그림1)하는 비행절차로 운영되어 왔으나,
- (변경) 활주로 북쪽방향으로 선회하는(A, D지점) 비행절차(그림1)로 변경함에 따라

○ 훈련용 항공기가 여수 국가산업단지 상공을 비행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였다.

□ 특히, 부산지방항공청은 여수공항 비행경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공군, 한국공항공사, 대학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안전협의체*를 통해 긴밀히 협의해 가면서 최적의 경로를 설정하였다.

* 공군 제3훈련비행단, 남해지방해양경찰항공대, 한국공항공사, 태안비행장(한서대학교), 울진비행장(항공대학교, 한국항공직업전문학교) 등 29개 민·관·군 협의체

□ 장만희 부산지방항공청장은 “이번 여수공항 비행경로 변경에 따라 급격하게 증가한 훈련용 항공기의 안전 보장은 물론 초대형 재난 발생 가능성도 제거되었다” 며, “항공정보간행물(AIP)에 등재되는 11월 7일부터는 훈련 조종사에게는 한층 안전하고 효율적인 입·출항 경로가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보도해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부산지방항공청 항공관제국 임의석 주무관(☎ 051-974-220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